

내용중심 교수의 효과에 대한 학습자 인식과 태도

김성연*

Kim, Sung-Yeon(2011), “Does content-based instruction attain two aims for one? From learners’ perspectives”, *Language & Information Society* 14.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 content-based instruction (CBI) course on Korean EFL students’ self-perceived language skill, thinking skill, and affect. A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measure students’ attitudes toward CBI and its benefits and problems. Twenty four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based on which follow-up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students perceived the CBI course as beneficial for developing listening, speaking and note-taking skills. They also believed that CBI facilitated the acquisition of content knowledge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students considered discussion as more useful and effective than lectures. They reported that their learning interest increased as a result of taking the CBI course. While the students perceived that CBI is effective in acquiring language skills and content knowledge, they cautioned that differences in language proficiency could negatively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CBI.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I. 서론

최근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국제적 의사소통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목표로 다양한 교수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영어교육 현장에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결과 한국 학생들의 기본 의사소통능력은 일정 수준까지 향상하였다(Kim & Berting, 2005). 그러나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은 기본 의사소통능력을 습득한 중상위 수준의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용 중심 교수(content-based instruction, CBI) 형태로 실시되어야 한다(Kim & Berting, 2005)

내용 중심 교수는 이제 한국의 대학에서 표준(norm)이 되었다고 Kim(2009)은 밝히고 있다. 이는 대학 기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가 국제화 지표로서 영어 전용 강좌 수로 대표되기 때문이다. 대학은 글로벌 캠퍼스, 글로벌 교육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전공 분야의 교과목을 영어로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대학에서 다수의 내용 수업이 영어로 개설, 실시되고 있다(Kang, 2007, 2009; Kim, 2009).

내용 중심의 교수는 내용과 언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으며 학습자 동기, 흥미,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많은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Brinton, Snow, & Wesche, 2003; D.H. Kang, 2010; Kim, 2009; Wesche & Skehan, 2002). 특히, Kim과 Berting(2005)은 의사소통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에 기반을 둔 대부분의 회화(conversation)강좌가 읽기, 쓰기 등의 문자언어 능력을 신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문제는 CBI를 활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CBI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인이며 대학이나 전문적인 환경이 요구하는 수준의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Crandall & Kaufman, 2002; Kang, 2009; Kim & Berting, 2005).

내용 중심 교수는 대학에서 영어전용 강좌 수를 늘려야 하는 필요성에서 출

발하였지만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 습득을 주요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을 발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 특히, 영어 공용화나 몰입식(immersion) 교육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보다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최근 내용중심의 교수는 대학뿐 아니라 일부 초, 중등학교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 실시되고 있다.

그 결과 국내에서의 CBI 적용 효과 및 사례를 조사, 분석한 연구들도 다수 이루어졌다. 그러나 CBI 관련 연구 중 다수가 학습자의 언어 능력 향상이나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거나 학습자 정의(learner affect)에 초점을 둔다고 해도 동기, 자신감, 만족도 등의 변인 중 하나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즉, CBI를 경험한 학습자 관점에서 학습자의 정의적 반응을 동기, 흥미, 자신감, 만족도, 언어 능력과 사고력 향상에 대한 자기 평가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CBI 수업을 경험한 학습자의 관점에서 CBI 수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동기, 흥미, 불안, 수업 만족도, 영어 능력 및 사고력 향상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기술, 분석하고자 한다. 다양한 학습자 태도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정의적 변인들(affective variables)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최근 연구 동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CBI는 언어 사용이 언어 발달의 원동력(“language use is the driving force for language development”)라고 보는 의사소통 접근법(Brandl, 2008, p. 7)에서 출발한 것으로 내용(subject matter)과 언어(second language)를 동시에 가르치는 교수 방법이다(Brinton, Snow, & Wesche, 1989). Brinton 외 2인(1989, 2008)은 언어보다 내용에 더 초점을 둔 CBI(strong form of CBI)에서 언어는 학습의 목표가 아니라 내용 지식의 습득을 지원하는 도구

(vehicle)임을 강조하고 있다.

CBI는 언어와 교육과정의 내용을 연결한 내용-언어 통합형 교수법으로서 (Leung, 2007), 교육과정상의 내용을 교수, 학습하기 위해 제 2언어를 도구로 사용하는 교수법(“an approach to second language instruction in which the L2 is used as the medium of instruction to teach and learn curricular content”)으로 정의되고 있다(Lotherington, 2004, p. 707). 이와 같이 CBI는 언어와 내용 지식의 습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Wesche & Skehan, 2002).

내용 중심 교수법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Lightbown과 Spada (2006)는 CBI는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확대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를 통해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학습동기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Pally(2000)는 CBI를 통해 학생들이 흥미있는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학습동기가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학습자 관점에서 자신에게 관련성이 높은 내용은 동기를 높이기 때문이다. CBI는 의미 중심의 교수 학습 환경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 능숙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Brinton 외 2인, 2008).

뿐만 아니라 일반 외국어 수업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내용, 성인 학습자의 지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흥미로운 내용(cognitively challenging and interesting content)을 배울 수 있다(Kim & Berting, 2005). 특히, CBI는 학술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능력(“manipulation of language in decontextualized academic situations”)으로 정의되는 인지적, 학술적 언어능력(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Cummins, 1992)을 신장하는 데 효과적이다. Pica(2009)는 학습자 요구가 언어에서 출발하지만 전공 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전문적 내용과 기술의 습득으로 확대되는 경우 CBI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CBI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유용하

다고 보고하였다(Pally, 2000; Stoller, 2002). 특히 Stoller는 CBI는 주입식 (brainwashing/spoonfeeding) 교육을 지양하고 긍정적인 긴장감(positive tension)을 조성해 학습자가 다양한 관점(multiple perspectives)을 평가,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에 사고력 계발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적 장점이 많은 CBI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Brinton, Snow와 Wesche(1989)는 CBI가 화제(theme)를 기능 중심(skill-based), 언어 중심(language-based)의 수업을 설계하는 데 출발점이 되며 강의 교수요목(course syllabus)을 구성하는 원리가 된다고 보는 화제 중심(theme-based) 교수법, 제2 언어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원어민들이 듣는 일반 수업(mainstream courses)보다 언어적 지원(language support)을 제공하는 수업(sheltered instruction), 내용 수업과 이를 지원하는 언어 수업을 별도로 개설하는 수업(adjunct instruction)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위에 제시된 유형과 다른 CBI 방법으로 지속적 내용교수(sustained CBI)가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특정한 전공분야(discipline)를 반 학기 또는 한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중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노트 필기, 연구 방법 등의 학술적 기술을 익히는 형태로 정의된다(Pally, 2011). Kim과 Berting(2005)은 대학에서 개설된 sustained CBI 수업이 학습자의 말하기,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 수준별로 말하기 능력의 사전, 사후 검사 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수준이 낮은 학습자가 높은 학습자보다 말하기 능력이 더 많이 향상했음을 확인하였다. 쓰기 능력 측면에서는 CBI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 간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영어 능력이 부족해도 내용을 잘 이해하는 학생이 CBI 수업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Kang과 Park(2005)은 영어 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자가평가(self-assessment)가 교재 내용 이해, 강의 내용 이해, 학습 결과에 대한 자기 평가

와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고하면서 영어로 내용을 가르치는 교과 수업에서 학습자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내용 중심 교수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조사한 연구로서 Kang (2007)은 122명의 CBI 수강생과 CBI 수업 경험이 전혀 없으나 향후 CBI 수업을 듣게 될 5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CBI 강좌를 듣는 것에 대해 높은 흥미와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동시에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Kang(2008)은 CBI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대학원 석사 과정생 3명을 대상으로 CBI 수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학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CBI 수업이 언어 능력과 전공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초기에는 학생들이 CBI 수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학기가 지나면서 수업 내용에 친숙해짐에 따라 향후에 들을 CBI 수업에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졌음을 발견하였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CBI의 효과를 조사한 다른 연구로서 Kang (2009)은 영어과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한 ‘영어학 연구방법’이라는 CBI 강좌를 수강하는 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내용이해 평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BI가 대학원 수준에 맞는 과업을 제공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에게도 도움이 되며 학생들이 학문적 지식 및 언어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서 A.J. Kang(2010)은 CBI 수업을 경험한 대학원생과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내용 이해도 평가, 말하기, 쓰기 평가,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수업 내용 이해 정도 및 CBI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영어 능숙도가 높은 학부생과 학교 교육(schooling)기간이 긴 대학원생 간에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학교 교육을 통해 모국어로 습득한 인지적 학술적 언어능력(CALP)이 CBI 수업에서 활용되기 때문이며 CBI 수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읽기 능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Kim(2009)은 CBI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과업으로서 수업 토론 전략(Course Discussion Strategies, CDS) 6가지를 개발하여 이를 2개의 CBI 강좌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조사하였다. CBI 수업(영어교수이론 35명, 영어교수 모형 27명)을 수강하는 6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인터뷰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CDS 노트북을 수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CDS가 교과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읽기 자료와 수업 내용을 잘 연결해주며 수업 및 수업 환경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CDS 활용이 학습자가 CBI 수업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학습자 불안감은 낮아지고 향후 CBI 수업을 들길 희망하는 비율은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CBI 수업에서 학습자 정의(affect)를 과정 중심의 학습동기(process-oriented motivation)에 역점을 두고 고찰한 연구로서 D.H. Kang(2010)은 영어교수법 수업을 수강하는 2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CBI 수업과 관련된 학습동기를 행동(action) 실행 전, 중, 후의 3단계에 걸쳐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학기 초, 중, 후반에 실시된 설문조사와 내용 이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기말고사를 분석한 결과, 초기에 지식(knowledge) 목표 지향성(goal orientation)을 가졌던 학생들이 강의에 더 집중하였고 그 결과 내용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한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통합적 동기, 외적 동기, 도구적 동기 등이 CBI 수업에서의 성취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반해 인지/지식 관련 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CBI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몰입 교육 환경이나 ESL 환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SL 환경에서 이루어진 CBI 연구들은 Brinton 외 2인(1989)이 제안한 유형 중 하나를 적용한 효과를 검증하거나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Gibbons, 2003; Pica, 2002)들이 많은데 반해 국내의 연구는 EFL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지속적 CBI(sustained CBI)나 영어전용 내용 강좌(English-

mediated content courses)를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나 내용 이해 측면에서 효과를 검증하였다(Kim & Berting, 2005; A. J. Kang, 2007, 2008, 2009, 2010).

학습자의 반응을 조사한 연구들도 있지만 흥미, 동기, 자신감 등 중 한 두 개 변인에 치우쳐 조사가 이루어졌다(D.H. Kang, 2010; Kang, 2008; Kim, 2009). 즉, 영어 능력, 사고력, 흥미, 자신감, 수업 만족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CBI 수업을 경험한 학습자의 반응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sustained CBI 형태로 진행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관점에서 CBI 수업이 영어 능력, 사고력, 흥미, 동기, 자신감, 강의 만족도 등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술,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질문

본 연구는 한국 대학의 교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sustained CBI 수업이 학습자의 내용 이해, 언어 능력, 사고력, 정의(affect) 등의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학생 관점을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 목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생들은 CBI 수업이 내용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학생들은 CBI 수업이 언어 능력 및 비판적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 2) 학생들은 CBI 수업이 학습 흥미 및 자신감 고취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학생들은 CBI 수업이 외국어 학습 불안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 3) 학생들은 CBI 수업의 토론 활동과 강의 중심의 수업 방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4) 학생들은 CBI 수업 경험자로서 CBI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개설한 sustained CBI 강좌 ‘Globalization and the World’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CBI 강좌를 담당한 교수는 캐나다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원어민으로서 대학 내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소속된 초빙교수였다. 원어민 강사는 교양영어가 아닌 내용 수업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수업을 충실하게 준비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CBI 수업은 국제학부에서 개설한 강좌로서 원래 수강 인원은 30명이었지만 설문조사(n=24)와 인터뷰(n=25)에 참여한 학생 수는 전체 인원과 차이가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학년별 인원을 살펴보면 4학년이 16명(64%)으로 가장 많았고 3학년(n=5, 20%), 2학년(n=3, 12%), 1학년(n=1, 4%)의 분포를 보였다. 전공별 인원은 공과대학이 13명(52%)으로 가장 많았고 인문대학 학생이 3명(12%)이었다. 그밖에도 경제금융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학생이 각각 2명(8%),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 학생이 각각 1명(4%) 있었다.

한편, 인터뷰를 통해 영어 기능별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게 한 결과, 학생들은 읽기(83.2/100)와 듣기(81.1/100)는 중상 수준으로 인식한 반면 쓰기(69.0/100), 말하기(68.8/100)는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자기 평가 점수는 높지 않았으나 상위권 대학의 국제학부에서 개설한 영어전용 강좌를 수강 신청했음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중상 수준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학생 중 다수(n=12, 48%)는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등을 통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해외거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거주(1년 이상) 경험이 있는 학생 수는 8명(32%)인데 반해 해외거주 경험이

없는 학생은 5명(20%)으로 나타났다.

강좌 수강 이유와 관련해서는 영어 공부를 위해서(n=4, 27%), CBI 수업을 듣고 싶어서(n=4, 27%), 취직/유학 준비를 위해서(n=3, 20%), 성적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n=2, 13%), 교양을 쌓기 위해서(n=2, 13%) 등의 답변이 있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95.7%) 읽기 자료를 예습하면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데 반해 20.8%의 학생들만 수업 전에 읽기 자료를 예습한다고 응답하였다. 중간고사와 관련해서는 준비가 어렵지도 쉽지도 않다고 응답하였고(62.5%), 학생 전원이 시험이 내용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가 사용되었다. 설문지는 배경정보 문항 4개와 36개의 척도형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부록 참조) 응답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제시되었다.

전체 문항은 내용 이해(1문항), 언어 능력 향상(8문항), 사고력(3문항), 학습흥미(3문항), 자신감(4문항), 불안감(4문항), 강의 만족도(5문항), 토론의 효과(3문항), 토론과 강의(4문항) 관련 문항들과 함께 교사에 대한 질문, 예습, 시험 등에 관련된 문항(5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한편,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는 학습자의 전공, 영어 노출 시기, 영어 기능별 수준 등과 같은 참여자의 배경정보를 묻는 문항과 함께 CBI 수업의 장점 및 단점, 영어에 대한 태도(불안, 동기 등), 토론 중심 수업과 강의 중심 수업에 대한 생각,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을 묻는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4. 자료 수집 절차

설문조사는 수업의 출석 인원 2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조사는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한편, 인터뷰는 25명의 학생들과 1인당 15분씩 면담으로 실시되었다.

인터뷰에 앞서 담당 강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구두 언어 시험(oral proficiency interview)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은 그 후 연구자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 참여하여 CBI 수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공유하였다.

IV. 연구 결과

1. CBI 수업이 내용 이해, 언어 능력,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CBI 수업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91.7%) 그 효과를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밝혀졌는데 16명(52%)의 학생들은 강좌를 수강한 결과 세계의 글로벌화라는 내용(content)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12명(40%)의 학생들은 CBI 수업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다양한 견해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내용 이해 정도가 수업 수강 전과 거의 비슷하다고 답한 학생은 2명(7%)에 불과했다.

표 1. 내용 이해

번호	1	2	3	4	5	평균	표준편차
11	0%	0%	8.3%	25%	66.7%	4.58	.65

영어 능력과 관련해서는 79%의 응답자가 수업을 통해 영어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영어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능력(95.9%), 영어 듣기능력(95.8%), 영어로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95.9%)이 향상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언어기능별 향상과 관련해서는 어휘력(87.5), 말하기 능력(75%), 쓰기능력(70.8%), 읽기 능력(6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어휘력이 향상했다고 응답한 것은 영어로 된 CBI 강의가 학생들이 새로운 어휘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경로가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수업 중 원어민 교수는 언어 입력의 제공자(input provider)로서 내용 관련 어휘들을 많이 사용하고 이는 학생들의 어휘력 신장에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66.7%의 응답자만 CBI 수업이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이유는 수업 중 읽기가 일반 교양영어 수준 이상의 전문적 읽기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렵게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2. 영어능력

번호	1	2	3	4	5	평균	표준편차
1	0%	4.2%	16.7%	58.3%	20.8%	3.96	.75
2	0%	0%	4.2%	41.7%	54.2%	4.5	.59
3	0%	4.2%	0%	62.5%	33.3%	4.25	.68
4	0%	0%	4.2%	54.2%	41.7%	4.38	.58
7	4.2%	4.2%	20.8%	50%	20.8%	3.79	.98
8	0%	4.2%	29.2%	37.5%	29.2%	3.92	.88
10	0%	0%	25%	45.8%	29.2%	4.04	.75
12	0%	4.2%	8.3%	62.5%	25%	4.08	.72

한편, CBI 수업이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86.9%의 응답자가 그 효과를 긍정하였다(표 3). CBI 수업 활동 중 토론 중심의 수업 방법은 문제해결능력(79.1%)과 비판적 사고력(62.5%)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고력

번호	1	2	3	4	5	평균	표준편차
5	0%	0%	13%	73.9%	13%	4	0.52
25	0%	4.2%	16.7%	58.3%	20.8%	3.96	0.75
30	0%	4.2%	33.3%	45.8%	16.7%	3.75	0.79

2. CBI 수업이 흥미, 자신감, 외국어학습 불안에 미치는 영향

CBI 수업이 학습자 정의(learner affect)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 흥미, 자신감, 외국어학습 불안 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학습흥미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CBI의 효과를 긍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수업 후 영어가 더 좋아졌다”(95.8%), “영어가 더 재미있어졌다”(86.9%), “영어 공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91.7%) 등의 문항에 대해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표 4. 학습흥미

번호	1	2	3	4	5	평균	표준편차
6	0%	0%	4.2%	75%	20.8%	4.17	0.48
9	0%	4.3%	8.7%	65.2%	21.7%	4.04	0.71
13	4.2%	4.2%	0%	62.5%	29.2%	4.08	0.93

한편, 자신감 관련 문항에서는 동의율이 학습 흥미만큼 높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업을 통해 영어 듣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2.5%로 가장 많았다. 말하기와 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4.1%인데 반해 읽기에 대한 자신감 향상과 관련해 긍정적인 비율은 45.8%로 나타났다.

듣기에 대한 자신감 향상은 영어 전용으로 된 강의를 한 학기동안 수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읽기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향상하지 않은 것

은 읽기 자료가 일반 교양영어 글감이 아니라 전문적인 내용의 텍스트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5. 자신감

번호	1	2	3	4	5	평균	표준편차
31	0%	12.5%	25%	54.2%	8.3%	3.58	0.83
32	0%	16.7%	29.2%	45.8%	8.3%	3.46	0.88
33	0%	12.5%	41.7%	33.3%	12.5%	3.46	0.88
34	0%	8.3%	37.5%	45.8%	8.3%	3.54	0.78

흥미롭게도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 불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중 29%의 응답자가 “선생님의 강의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불안했다”고 응답하였고, “선생님이 수업 중에 질문하라고 할 때 부담스러웠다”고 답한 학생은 없었다(0%).

표 6. 외국어 사용 불안

번호	1	2	3	4	5	평균	표준편차
16	20.8%	29.2%	20.8%	25%	4.2%	2.63	1.21
17	41.7%	41.7%	16.7%	0%	0%	1.75	0.74
26	16.7%	33.3%	25%	16.7%	8.3%	2.67	1.20
28	33.3%	37.5%	12.5%	16.7%	0%	2.13	1.08

토론 중심의 수업에서 “영어로 생각을 표현하지 못할 때 당황스러웠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도 25%로 나타나 높지 않았고, “토론 중심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웠다”고 답한 학생은 16.7% 수준에 그쳤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외국어 사용 불안이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강생 중 다수가 장·단기 해외 거주 경험이 있으며 기본 영어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학습동기 및 흥미에 대한 답변은 인터뷰 결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CBI 수업을 들은 후 달라진 태도와 관련하여 다수의 응답들이 자신감 향상 및 불안감 감소(39%), 학습동기 고취(26%) 등을 대표하고 있었다.

표 7. 인터뷰 응답: 영어에 대한 태도

이 수업을 들은 후 영어에 대한 태도 (불안, 동기 등)	응답수 (%)	
자신감 향상/불안감 감소	12	(39%)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	8	(26%)
듣기 자신감 향상/불안감 감소	2	(6%)
말하기 자신감 향상/불안감 감소	2	(6%)
언어는 수단/도구라는 생각	2	(6%)
문법보다 읽기, 쓰기가 중요함	2	(6%)
발음보다 내용이 중요함	1	(3%)
큰 변화 없음	1	(3%)
부담, 불안감 증가	1	(3%)
총계	31	(100%)

또한, 듣기, 말하기 등의 언어능력과 관련된 자신감 향상 및 불안감 감소를 표현한 응답이 있었고 발음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며 언어를 수단/도구로 보는 응답도 있었다. 이는 CBI 수업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언어 형식보다는 내용과 의미에 초점을 두며 문자언어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부담, 불안이 증가했다는 응답(3%)과 함께 태도상 큰 변화가 없다고 밝힌 응답(3%)도 있었다.

3. CBI 수업 활동(토론 중심과 강의 중심 방법)에 대한 인식

CBI 수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토론과 강의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조사하

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8, 표 9와 같다. 선생님 강의가 토론 활동보다 유익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37.5%만 긍정하였고, 선생님 강의 위주의 수업이 더 좋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지 않았다(29.2%).

표 8. 강의수업 선호

번호	1	2	3	4	5	평균	표준편차
20	0%	16.7%	45.8%	33.3%	4.2%	3.25	0.79
21	0%	37.5%	33.3%	29.2%	0%	2.92	0.83

표 9. 토론수업 선호

번호	1	2	3	4	5	평균	표준편차
19	0%	4.2%	20.8%	50%	25%	3.96	0.81
22	0%	20.8%	33.3%	33.3%	12.5%	3.38	0.97

반면 “토론 중심의 수업이 나에게 맞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 75%로 나타났고 토론 위주의 수업을 선호한 학생 비율도 45.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강의 위주의 수업보다 토론 중심의 수업을 선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기본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 토론 시 의사 표현과 전달에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토론 중심 수업의 구체적 효과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토론 중심 수업이 협동학습능력 향상(79.2%), 사교성 향상(62.5), 의견 차 조율 능력 향상(62.5%)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토론수업의 효과

번호	1	2	3	4	5	평균	표준편차
24	0%	4.2%	16.7%	54.2%	25%	4	0.78
27	0%	16.7%	20.8%	45.8%	16.7%	3.63	0.97
29	0%	4.2%	33.3%	50%	12.5%	3.71	0.75

한편, 토론 중심의 수업과 강의 중심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 인터뷰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반응이 양분화되었다. 강의를 더 선호한다(40%)와 강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10%)고 생각한 응답자와 토론을 더 선호한다(17%), 토론 비중을 늘려야 한다(10%), 현재 수준의 강의, 토론 결합이 좋다(23%)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론 중심 수업과 강의 중심 수업이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인데, 학생 관점에서 각 수업 방법의 장점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은 토론 중심 수업의 장점으로 생각을 표현할 기회(25%), 내용에 대한 이해(25%), 교수님의 전문적 견해를 접할 수 있음(20%), 듣기 능력 향상(15%), 말하기 능력 향상(10%), 영어에 대한 거부감 감소(5%)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문제점으로는 학생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진 경우 한계가 있음(36%), 그룹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차이가 있음(29%), 내용지식의 차이로 인해 토론의 효과가 다를 수 있음(14%), 말하기의 어려움(14%), 교수 1인이 다수 그룹을 통제하기 어려움(7%) 등이 지적되었다.

강의 중심 수업의 장점에 대해서는 교수의 전문적 시각/견해를 배울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고, 듣기 실력 향상(30%)과 내용 이해(30%)를 장점으로 제시한 비율이 동일하였다. 한편,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듣기와 필기의 어려움(64%), 의견 교환의 기회 없음(18%), 질문하기 어려움(9%), 노력이 많이 요구됨(9%) 등의 응답이 있었다.

4. 학습자 관점에서 CBI의 장점 및 단점

CBI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95.8%가 “이 수업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고 답하였고, 91.6%의 학생이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이 나에게 맞았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91.7%의 응답자가 강의와 토론이 잘 조화된 수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86.9%의 응답자가 CBI 수업이 일반 영어 수업보다 효과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다수의 응답자(91.7%)가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 한국인 선생님이 영어로 가르치는 수업보다 낫다고 응답하였다. 흥미롭게도 원어민 교수가 수업 중 주관적 견해를 강조했는지를 묻는 18번 문항에 대해 학생들의 동의율은 0%로 나타났다. 이는 원어민 선생님이 내용을 교수함에 있어 자신의 사고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CBI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CBI 수업 만족도

번호	1	2	3	4	5	평균	표준편차
14	0%	0%	4.2%	25%	70.8%	4.67	0.57
15	0%	0%	8.3%	33.3%	58.3%	4.5	0.66
18	54.2%	29.2%	16.7%	0%	0%	1.63	0.77
23	0%	0%	8.3%	54.2%	37.5%	4.29	0.62
35	0%	13%	0%	13%	73.9%	4.48	1.04
36	0%	0%	8.3%	16.7%	75%	4.67	0.64

원어민 교수에 대한 생각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조사되었는데 학생들은 원어민 교수가 성실하고(22%) 학생을 존중, 배려하며(17%) 재미있고(17%) 학습자에게 친절함(15%),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는 점(9%), 학생의 참여를 유

도하는 점(7%),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태도(7%), 독립적인 시각(7%) 등을 장점으로 지적하였다.

원어민 교수 수업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생이(63%) 없다고 응답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부 학생의 응답에서 나온 문제점을 살펴보면 질문, 대화가 어려운 점(17%), 수업이 아주 어렵지 않은 점(4%), 학생 수준별로 지도하지 않는 점(4%), 교사의 관점에 준한 내용 선택(4%), 불명확한 설명(4%), 학자처럼 보이지 않는 점(4%) 등이 있었다.

원어민 선생님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원어민 교수 및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설문 문항 중 수업의 좋았던 점을 묻는 개방형 문항에 대해서도 영어로 진행된 수업(n=9, 24%), 토론, 퀴즈 등의 활동(n=8, 22%), 성실한 선생님(n=7, 19%), 수업 분위기(n=3, 8%), 수업 내용 및 주제(n=3, 8%) 등의 답변이 제시되었다.

표 12. CBI 수업에서 좋았던 점(설문 개방형 문항)

수업에서 좋았던 점	응답수(비율)	
영어 강의(영어로 진행된 수업)	9	(24%)
토론, 퀴즈 등의 활동	8	(22%)
성실한 선생님	7	(19%)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3	(8%)
수업 내용, 수업 주제, 수업 방식 등	3	(8%)
흥미로운 주제 및 재미있는 강의	2	(5%)
강의와 토론 수업	2	(5%)
사고력 향상	1	(3%)
영작능력 향상에 도움	1	(3%)
교수님과의 유대관계	1	(3%)
총계	37	(100%)

수업과 관련해서 아쉬웠던 점을 묻는 개방형 문항에 대해서는 표 13에 요약된 바와 같이 응답을 하지 않거나(n=2, 8%) 없다고 응답(n=2, 8%)하거나 자신의 참여 부족, 다른 학생들의 참여 부진, 실력의 부족 등 학생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가 많았다.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답변으로 강의 시간 부족(n=4, 15%),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은 점(n=3, 12%), 미흡한 교재(n=1, 4%), 너무 쉬운 내용(n=1, 4%), 어려운 어휘(n=1, 4%), 과제 및 발표 기회의 부족(n=1, 4%), 노트 필기(n=1, 4%),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지 않음(n=1, 4%) 등이 있었다.

표 13. CBI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설문 개방형 문항)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	응답수(비율)	
강의 시간 부족	4	(15%)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은 점	3	(12%)
체계적이지 못한 강의	2	(8%)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점	2	(8%)
학생들 간의 수준 차	2	(8%)
실력 부족	2	(8%)
학생들의 참여부진	1	(4%)
미흡한 교재	1	(4%)
과제, 발표 기회의 부족	1	(4%)
어려운 어휘	1	(4%)
너무 쉬운 내용	1	(4%)
노트 필기	1	(4%)
다양한 매체 사용의 결여	1	(4%)
없음	2	(8%)
무응답	2	(8%)
총계	26	(100%)

한편,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관점에서 CBI 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 14, 표 15와 같다.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응답 중 24%가 영어와 내용 지식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CBI의 장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밖에도 영어 습득 및 향상(18%), 다양한 관점 이해(15%), 내용 지식 습득(12%), 취업, 유학 준비(12%), 수준 높은 영어 학습(9%), 살아있는 영어 습득(6%), 재미(3%) 등의 응답이 제시되었다.

표 14. CBI 수업의 장점

CBI 수업의 장점	응답수(비율)	
일석이조(영어 및 내용 지식 습득)	8	(24%)
영어 습득 및 향상	6	(18%)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	5	(15%)
내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	4	(12%)
취업/유학 준비에 도움	4	(12%)
수준 높은 영어를 배울 수 있다.	3	(9%)
살아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다.	2	(6%)
재미있다.	1	(3%)
총계	33	(100%)

표 15. CBI 수업의 단점

CBI 수업의 문제점	응답수(비율)	
균등하지 않은 토론 참여 (학생들의 수준 차)	9	(28%)
화제 선정 (관심 없는 내용, 어려운 내용, 피상적 내용 등)	6	(19%)
어려움	5	(16%)
불성실한 학생	5	(16%)
예습/복습량 및 학습량의 부담	4	(13%)
토론 시간 부족	1	(3%)
문제점 없다	1	(3%)
무응답	1	(3%)
총계	32	(100%)

한편 CBI 수업의 단점으로는 학생들의 수준 차이로 인해 토론 참여가 균등하지 않은 것(28%)과 학생들의 관심 분야와 동떨어지거나 어려운 내용, 피상적인 내용 등을 화제로 선정하는 것(19%)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표 15). 그 외에도 수업이 어려운 것(16%), 불성실한 학생이 있는 것(16%), 학습량에 대한 부담(13%), 토론 시간의 부족(3%) 등이 CBI 수업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sustained CBI 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CBI 수업이 내용 이해, 영어 능력, 사고력, 학습 흥미, 자신감, 외국어 학습 불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자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또한 CBI 수업의 장점 및 문제점과 함께 토론 중심의 활동과 강의 중심의 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견해도 조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학습자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로 살펴보면 학생들은 CBI 수업이 내용 이해와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영어 전용 수업을 듣는 능력, 강의 내용을 듣고 요약, 정리하는 능력,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과 함께 내용 관련 어휘에 대한 지식이 향상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CBI 수업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학습 흥미가 높아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기능(skill)별 자신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습자의 불안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중상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중상 이상 수준의 언어능력 때문인지 학생들은 강의보다는 토론이, 일반 영어 수업보다는 CBI 수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CBI 수업의 장점으로 내용과 영어를 동시에 배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강조하였고 학습자 수준 차이 및 내용 선택(content selection) 등이 사전에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 CBI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적은 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기초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가 기술통계 수준에서 보고되고 있어 제한적이다. 또한 수업을 진행한 원어민 강사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교사 변인(teacher factor)이 학습자 반응에 미쳤을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CBI 수업의 유무, 학습자 수준, 교사 변인 등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집단 간 비교를 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결과가 다소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CBI는 대학 교육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언어 능력에 도달한 상위 수준의 학습자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내용의 전달을 위해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는 CBI 수업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중에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공유하고 배움으로써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되고 내용이 학습자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하는 경우 학습 흥미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개설하는 내용 강좌 중 영어를 도구로 하여 전달했을 때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과목들은 영어 전용 강좌로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지적 발달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 관점에서 교양 영어 수업에서 주로 다루는 화제(교우 관계, 학교 생활 등)는 진부하기 쉽고 발달 단계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내용 수업을 설계함에 있어 교강사는 강의 보다는 토론이나 역할극 같은 학습자 주도의 활동(learner-led activity) 비율을 늘리고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 간 언어 능력의 차이가 고 학생들의 관심시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높 강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수준이 낮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들의 전반부에 미리보기(preview) 시누 강제공 하거나 들의 중 수준별로 모둠을 구성하거나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모이도록 울여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활용함으로써 수준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CBI 수업의 일석이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 Brandl, K. (2008).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in action: Putting principles to work*. Upper Sa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Brinton, D.M., Snow, M.A., & Wesche, M.B. (1989). *Content-based second language instruction*. Boston: Heinle & Heinle.
- Brinton, D.M., Snow, M.A., & Wesche, M.B. (2003). *Content-based second language instruction*.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rinton, D.M., Snow, M.A., & Wesche, M.B. (2008). *Content-based second*

- language instruction* (Michigan Classics Edition).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randall, J., & Kaufman, D. (Eds.). (2002). *Content-based instruction in higher education settings*. Alexandria, VA: TESOL.
- Cummins, J. (1992). "Language proficiency, bilingualism, and academic achievement". In P. A. Richard-Amato & M. A. Snow (Eds.), *The multicultural classroom: Readings for content-area teachers* (pp. 16-26). New York: Longman.
- Gibbons, P. (2003). "Mediating language learning: Teacher interactions with ESL students in a content-based classroom". *TESOL Quarterly*, 37(2), 247-273.
- Kang, A. J. (2007). "How to better serve EFL college learners in CBI courses". *English Teaching*, 62(3), 69-100.
- Kang, A. J. (2008). "First time in CBI". *English Teaching*, 63(4), 85-113.
- Kang, A. J. (2009). "A case study of a graduate-level CBI course". *English Teaching*, 64(4), 151-179.
- Kang, A. J. (2010). "The contribution of L1 CALP and L2 proficiency to successful CBI experience". *English Teaching*, 65(4), 3-39.
- Kang, D. H. (2010). "Process-oriented L2 motivation in content-based instruction (CBI)". *English Language Teaching*, 22(1), 45-66.
- Kang, S., & Park, H. (2005). "English as the medium of instruction in Korean engineering education".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1(1), 155-174.
- Kim, M. H. (2009). "A case study of the use of an instructional task for better CBI".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5(3), 169-213.
- Kim, S. Y., & Berting, R. (2005). "Content-based instruction: Bridging the gap between what students can do and what they need to do". *Foreign Language Education*, 12(3), 165-189.
- Leung, C. (2007). "Integrating school-aged ESL learners into the mainstream curriculum". In J. Cummins & C. Davison (Eds.), *International*

- handbook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pp. 249-270). New York: Springer.
- Lightbown, P. M., & Spada, N. (2006). *How languages are learned*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otherington, H. (2004). "Bilingual education". In A. Davies & C. Elder (Eds.), *The handbook of applied linguistics* (pp. 695-718). Malden, MA: Blackwell.
- Pally, M. (Ed.). (2000). *Sustained content teaching in academic ESL/EFL: A practical approach*. Boston: Houghton Mifflin.
- Pally, M. (2011). *Society & cinema: Academic content for academic skills development in ESL/EFL*. Retrieved April 1, 2011,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marciapally.com/Pages/cinema.html>
- Pica, T. (2002). "Subject matter content: How does it assist the interactional and linguistic needs of classroom language learners". *Modern Language Journal*, 86(1), 1-19.
- Pica, T. (2009). "Integrating content-based and task-based approaches for teaching, learning and research". In V. Cook & L. Wei (Eds.), *Contemporary applied linguistics Vol. 1: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p. 75-98). New York: Continuum.
- Stoller, F. L. (2002, April). *Content-based instruction: A shell for language teaching or framework for strategic language and content learn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ESOL, Salt Lake City, UT, USA.
- Wesche, B., & Skehan, P. (2002). "Communicative, task-based, and content-based language instruction". In R. Kaplan (Ed.), *The Oxford handbook of applied linguistics* (pp. 207-228).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부록

번 호	문항
1	이 수업을 통해 영어능력이 향상되었다.
2	이 수업은 영어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
3	이 수업은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4	이 수업은 영어로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
5	이 수업은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6	이 수업을 통해 영어가 더 좋아졌다.
7	이 수업은 영어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8	이 수업은 영어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9	이 수업을 통해 영어가 더 재미있어졌다.
10	이 수업은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11	이 수업을 통해 globalization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12	이 수업은 영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13	이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 공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14	이 수업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15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이 나에게 맞았다.
16	선생님의 강의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불안했다.
17	선생님이 수업 중에 질문 하라고 할 때 부담스러웠다.
11	이 수업을 통해 globalization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12	이 수업은 영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13	이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 공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14	이 수업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15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이 나에게 맞았다.
16	선생님의 강의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불안했다.
17	선생님이 수업 중에 질문 하라고 할 때 부담스러웠다.
18	선생님은 강의 중 globalization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지나치게 많이 나타냈다.

- 19 토론 중심의 수업이 나에게 맞았다.
- 20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것이 토론 활동보다 유익했다.
- 21 나는 선생님 강의 위주의 수업이 더 좋았다.
- 22 나는 토론 위주의 수업이 더 좋았다.
- 23 선생님 강의와 토론이 적절하게 조화된 수업이었다고 생각한다.
- 24 토론 중심 수업은 협동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25 토론 중심 수업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26 토론 중심 수업에 영어로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울 때 당황스러웠다.
- 27 토론 중심 수업은 사고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28 토론 중심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웠다.
- 29 토론 중심 수업은 그룹 구성원 간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30 토론 중심 수업은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31 이 수업을 통해 영어 듣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 32 이 수업을 통해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 33 이 수업을 통해 영어 읽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 34 이 수업을 통해 영어 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 35 이 수업이 내용과 영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어 영어만 배우는 수업보다 효과적이다.
- 36 이 수업이 원어민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어 한국인 선생님이 영어로 진행하는 내용 수업보다 효과적이다.
-

김성연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E-mail: sungkim@hanyang.ac.kr

접수일자: 2011년 3월 20일

심사완료: 2011년 5월 20일

게재확정: 2011년 5월 23일